

# 드문 '5월 폭우'에 쓰레기 뒤덮인 해안

서귀포 남원 등 일부 지역에 18일 하루 400mm 넘는 폭우 물에 있던 퇴적물 밀려들어 해안가 곳곳에 '쓰레기 산' 공천포 해안에도 낙엽 등 각종 쓰레기 쌓여 악취 우려 남원읍 "수거작업 벌일 것"



18일 하루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며 19일 오전 찾은 공천포에는 빗물에 떠밀려 온 낙엽과 나뭇가지, 각종 쓰레기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등 일부 지역에 18일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후 해안가에는 하천을 타고 휩쓸려 내려온 나뭇가지와 낙엽이 쓰레기산을 이뤄 미관을 해치고 있다. 하천변 등 물에 있던 퇴적물이 폭우로 불어난 물과 함께 하류인 해안가로 한꺼번에 밀려든 것이다.

19일 오전 찾은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 신례전을 타고 휩쓸린 낙엽들이 검게 띠를 이뤘 파도를 타고 넘실대고, 평소 같으면 검은모래와 자갈밭이어야 할 해안에도 낙엽과 나뭇가지, 각종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서귀포시와 기상청의 지역별 상세 관측자료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18일 하루 동안 신례리에는

431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4~8시 사이에는 시간당 32.5~51.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봄 기온 끝에 드물게 찾아온 5월 폭우였다.

이날 공천포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타풍이나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낙엽 등 쓰레기가 조금씩 해안가로 떠밀려 온 적이 있지만 이번엔 양이 엄청나다. 그동안 봄 기온

이 지속되다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에 쌓여 있던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쓸려내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공천포 해안은 제주올레코스가 통과하고, 아름다운 해안 경관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다 해안가에 쌓인 퇴적물 수거작업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가 풍길 우려도 없잖아 빠른 수거작업이 요구되

는 상황이다.

남원읍 관계자는 "해안 전역에 광범위하게 상당량의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비가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8명의 청정 제주 바다킴업과 함께 해안변 퇴적물 수거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주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시동

일자리 창출 등 1139억 투자  
제주시는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제주시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단'을 구성, 전 부서 협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고길림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국장 및 읍면동장 등 171명·8개 분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1차산업 기반 강화 ▷지역 자원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육성 ▷도시 건설 인프라 확충 추진 등에 총 1139억원이 투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제주시 경제가 재도약 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 "제주 해녀문화 전승 앞장설게요"

서귀포 법한해녀학교 입학식 신입생 33명 이론·현장교육  
주말마다 해녀물질 이론, 마을어장 관리 교육, 현장 잠수기술 실기와 실습, 해녀보호 시책과 선배 해녀들의 삶 등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년간 법한해녀학교를 통해 총 128명의 교육생이 졸업했고, 이중 현재 26명이 12개 어촌계에 가입해 물질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새내기해녀교육과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신규해녀들이 어촌계에 가입해 직업해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해녀문화 전승자 배출을 위한 법한해녀학교 제5기 입학식이 지난 18일 입학생 33명과 어촌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법한해녀학교 신입생은 지난달 교육생을 모집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3명(도내 23, 도외 10명)을 선발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7월 22일까지

# 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JTP)는 제주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등 제주 지역 주력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며, 분사·공장·연구소·지사 등 제주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 지원프로그램과 기업 임력에 상관없이 우수한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돼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JTP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성준기자

# 스마트폰 활용 돌봄서비스 추진...도,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시행

## 제주도, 과기부 공모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디지털 전환사업에 따른 민간주도형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한 '중고 스마트폰 업사이클링을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기술로 스마트폰 업사이클 플랫폼을 개발해 장애인 당사자가 부모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스마트폰으로 양자간 모니터링 및 위치 정보, 각종 행동 정보 및 분석 등의 혁신적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스마트폰 자체가 완벽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인 만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해 돌봄서비스에 적용·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기업체와 3자간 협약을 맺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전환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제주시, 공동주택 시설 관리비 지원

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복리·부대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공모는 지난 3월 33개 단지의 복리·부대시설 개선사업을 선정했으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에 대해 추가 공모하는 사항이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에서 3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의 부대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내달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 제주도-경희대, 스마트관광에 힘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제주시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2013년 경희대학교 직속 연구소로 설립된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는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우수논문상과 한국지식경영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경희

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가 축적해 온 스마트 관광 분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로운 관광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희대학교의 연구 결과와 제주도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접목해 스마트 관광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19TH TAMLA GUKAK CULTURE FESTIVAL

## 제19회 람라 축악제

■ 일시 : 2019. 5. 25(토) 오후 7시  
■ 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Jeju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모시는 글  
올해도 여전히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 여기저기에 핀 꽃들이 봄나비를 유혹하며 여름을 만들어 가는 이때에 제19회 람라국악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전통가라의 세계가 모든 국민의 마음에 흐르는 민족의 예술혼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얼마나 맛과 흥을 지닌 문화민족인가를 인식하게 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꽃향기보다도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국악의 대향연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나는 감동이를 시작으로 웅장한 태평소 합주가 어우러지는 무대에 오셔서 격려의 박수와 신명나는 어깨춤을 추워보시고 풍류도의 맛을 함께 즐기시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회원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317번길23  
T.064)763-1139/010-2697-0560 F.070-8900-056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강연회」 개최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미래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주지역 아이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미래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고자 2019년도 미래교육 강연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의 미래 비전과 인재 육성  
(부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주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방안)

■ 일 시  
2019. 5. 23. (목) 14:00~16:30

■ 장 소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 강 사  
현대원 박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제주 출신)

■ 참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회원  
- 도교육청 소속 유·초·중·고 교장(또는 교감), 교사  
-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전문직·일반행정직  
- 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일반시민 등

■ 주최 및 후원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전화 : 사무실 064) 722-4564, 사무처장 010-6626-7452

2019. 5.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회장 김재수

## 居昌慎氏 제주 화수회 모제 및 정기총회 안내

녹음이 짙어지는 푸른 5월에 친족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2019년도 거창신씨 제주화수회 정기총회 및 모제를 통해 하오니 친족님들께서는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 모제 : 오전 9시 - 총회 : 오전 10시

□ 장 소 : 외도동 입도선영 - 제주시 외도동 1046번지

□ 총회내용  
- 2018년도 화수회 운영 및 감사보고  
- 2018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및 회칙개정

□ 만 찬 : 오전 11시부터 총회장소

※ 연락처) 회 장 신유길 010-3930-6432  
부회장 신성문 010-2883-2838  
부회장 신용선 010-3694-6657  
부회장 신근형 010-3699-5158

居昌慎氏 濟州花樹會 회장 신유길

## 제주도 "토종" 태양광 기업 태양광 "누가" 시공 하세요?

발전 사업

- 초기자본 無
- 토지소유자 무자본 발전소 운영
- 유지/보수/관리 전문
- 친환경 스크류 공법

가정용 태양광

- 제주에너지공사 선정 기업
- 가정용 태양광 전문 설치 기업
- 고장난 태양광 수리(A/S)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6765-8853  
www.nanoomenergy.com